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 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 도피성II

(여호수아 20:1 ~21:45)

이종윤 원로목사

### IV.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법

이 도피성 제도는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도피성 사이엔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임에 틀림없다.

#### 1. 도피성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명령하실 때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닦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신19:3).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만들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도로는 매년 봄에 보수공사까지 했다. 길이 갈라지는 곳에는 정확한 도로 표시도 했다. 도피성을 찾는 이들은 헤매지 않아도 되었다. 표지판은 크고 명확해서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께 오려는 이들에게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는 이들은 죽은 자와 같다. 누가 그들을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의 답을 열고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는 교량도 설치하고 길도 보수하며 예수님께 가는 표지판도 크고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우리는 그 길에 서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가는 길로 안내까지 해야 한다. 그리고 외쳐야 한다.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여기로 오셔야만 살 수 있고 안전하답니다!"라고.

#### 2. 항상 열린 문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도적떼, 강탈자, 침략자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은 밤이 되면 굳게 닫힌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항상 닫아둔다. 그러나 도피성만은 항상 열어두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듯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 3. 모든 사람을 위한 문

도피성은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혜택을 받기 쉽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환상만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님께로 피난해야만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 4. 유일한 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갈 수 없다면 그들은 희망이 없다. 그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이스라엘 법으로는 없다. 피의 보복을 받아야 하므로 그는 피 값을 받아야 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사망의 원수를 누가 우리에게서 물리쳐 줄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

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11:25)라고 하셨다.

레위족에게 분배된 48개 성은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레위족의 봉사, 교육이 넓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 있다. 그중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이 7절에 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라"

이들은 한 어머니와 아들로 폭력, 방종, 분노, 증오에 끌려 행동했다. 위의 저주는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이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후 가나안 사람들의 화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이 두 족속의 후예들은 가나안 땅에서 분깃이 없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 봉사의 책임을 갖게 된다. 그들이 제사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오히려 땅의 분깃은 없을지라도 큰 복을 받은 것이었다.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어느 지파보다 많은 왕들을 배출했다.

모세도 레위족이었다. 아론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이었다.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그러나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 비느하스도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도 모두 레위 족속이다(민25:25). 그 일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와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엘리도 레위인이었다. 98세를 산 그는 실로에서 제사장이었다.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했다. 에스라도 레위인으로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여 에스라서를 기록했다. 스가라의 아들 세레 요한도 레위인이었다. 주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레위족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결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도 보아야 한다.

### 결론

구약시대의 도피성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도피성은 과실 치사자에 한하여 무죄한 자를 보호하는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받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다. 도피성에 피한 이들은 그 당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 - 2018 사명자 대회 -

## 오늘 I·II·III부 예배 시 발대식

10. 7(주) ~ 11. 25(주) (50일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3:11)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

## 한국기독교 학술원 제53회 공개세미나

### 3.1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2018. 10.29(월)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재)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 중윤 원로목사)는 10월 29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제53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일제 36년간 국토·국민·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우리 겨레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펼친 지 어언 99년이 되었다. 겨주의 자유·소유의 자유·표현의 자유·신앙의 자유·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우리에게 억압에서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은 근대 민족사의 최대 범민족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다.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치 원리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수의 정당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제53회 한국기독교학술원 신학공개세미나의 주제를 「3.1 운동과 자유민주주의」로 정하고 1부는 경건회로, 2부 제1강 '3.1운동·기독교 그리고 대한민국' -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교수,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김용직 박사(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제 2강 '한국 민주주의와 3.1운동의 의의' - 김광동 박사(나라정책연구원장) 이원익 박사(동아역사연구소 소장)가 논찬자로 나선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53회 학술공개세미나

####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일시 : 2018. 10. 29(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서울 중로구 대학로 3길 29)

재민 한국기독교학술원  
Academic Christians of Korea

서울 중로구 대학로 3길 29 한국기독교학술원 8102  
TEL: 02-745-2277 FAX: 02-745-8889  
http://www.inet.ac Email: inet@inet.ac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감우균·김연하1 김영숙 김인아 오후근 박수옥·황선영  
한세아 한대석 안미경 안선희5 정수길 윤요섭·안재희  
임대중 남재은 무 명 3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2019년도 봉사지원서

10월 21일(주) 까지 작성 / 사무국에 제출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교구일꾼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사봉사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2019년 교회 봉사지원서를 받는다.

오늘 주보에 삽지로 들어간 『2019년도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셔서 10월 21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부서별) : 11월 4일(주일)  
본선 : 11월 17일(토) 오후 1시  
하박국 전장(1~3장)

2018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  
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 1. 교회학교별 성경 암송 대회(예선)

- \* 일 시 : 11월 4일(주)
- \* 암송범위 : 하박국 전장(1-3장)  
단, 미취학 교육1국은 하박국 3장
- \* 신 청 :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 - 김혜연 집사  
일반 장년 성도 - 사무국

### 2.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 \* 일 시 : 11월 17일(토) 오후 1시

### 3. 시상 및 발표 : 11월 18일(주일) 찬양예배시







2018 사명자대회

사명자의 기도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 사명자인 우리!

안인호 장로(사명자대회 본부장)

해마다 가을이 문턱에 들어서면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기념주일 전 50일 간 사명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 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 라는 주제로 사명자 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91년 11월 24일 서울교회를 설립하기 전 50일 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증거의 사명을 받았던 교회 역사와 당시의 초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하며 사명자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헌신을 다짐하며 사명자 대회를 맞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받고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교회목표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을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신

5:3)'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과거부터 해오던, 매년 개최되는, 연례적인 행사로 다가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자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사명자대회는 말씀운동이며, 기도운동이며, 전도운동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용한 글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목회에 부름 받은 우리는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성경적 교회로 바르게 회복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삶이 예배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자 대회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나기태 권사 (9교구)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피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과 악행이 난무하며,

죄악의 그림자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주님을 모르고,

위정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에만 급급해,

이 나라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한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나라의 위기를

위기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결국은 모든 것이 신앙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땅에 묻힌 나라이고,

이제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눈물로써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소서

믿는 이들은 더욱 눈물로 간구하게 하시옵고,

믿지 않는 이들은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가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릴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케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서울교회에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소서,

그 모든 사명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주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주시고,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학과 취업을 앞 둔 자녀들에게

#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사41:10)



주님, 인생의 큰 시험을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고 노력한 자녀들의 땀방울이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땀 흘려 노력하지 아니한 요행이나 비열한 방법으로 과분한 결과를 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결과에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진학과 취업이라는 생의 첫 도전을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도록 도와주소서.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과 그에 따르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용기와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들이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위대한 목표가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과 많은 성도들의 기대는 오직 그들이 온전한 천국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이 관문을 멋지게 통과하도록 하옵소서.  
(편집부)



#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세례식을 마치고  
▲\*\*\*아주머니의 감사 식사예배

살롬! 이곳 OO 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지난 봄에 성도 중 '\*\*\*' 아주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함께 수술은 이곳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고향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12번 정도 받아야 되는데, 생활 형편이 안되어 3번만 받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형편상 이곳에서 다시 직장생활하며 항암치료를 이어갈 생각이었는데, 막상 이곳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고향에 가서 치료하라고 해서 아주머니는 몹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곤 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렵게 치료받을 길을 찾아 검사(PET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항암치료를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쳤고, 그 주간 주일모임 때 성도들이 과일이며 케익이며 준비해 와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둘째 주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 아주머니와 '\*\*\*\*'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 기도제목

- 1) OO교회가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전도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가도록.
  - 2)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인 성전 건축과 복지문화센터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 3) 10월 셋째 주일, 싸반도이(추수감사) 행사를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 4) 남성들 모임(아버지 기도회)이 가까운 시일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 5) 저희 비자갱신이 차질없이 잘 준비되도록.
  - 6) 우리 부부가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육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평안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주님 뜻을 이루도록.
  - 7) 대학진학을 준비 중인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선행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 다음 소식 드릴 때까지 주안에서 강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함께 동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00,000 드림.

\* 선교지역의 특성 상 선교사님과 교인들, 지역명은 익명으로,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11(목) 한국군선교 제 18회 신학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기조강연을 하고, 발표된 논문들에 대한 총평을 한다.



■ 귀국독주회 : 안효주 성도(찬양예배 오르기니스트) 10월 22일(월) 오후 7시 30분 햇불선교센터 사랑홀(온누리교회 양재성전)

■ 득녀 : 8교구 순형린 성도 전양희 성도 (손태헌 집사 박혜옥 집사 차남 가정)

■ 금주의 식사 : 잡채달걀 샐롱권사회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 사명자대회에 우리 모두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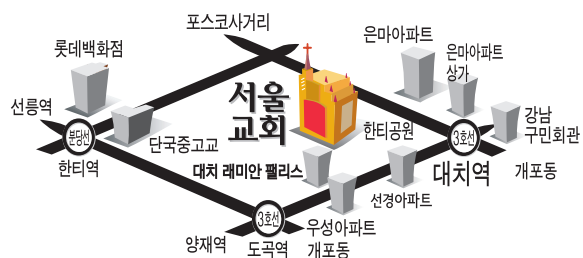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0월7일	주일	마 19-21		잠 13-19	
10월8일	월	마 22-23		잠 20-24	
10월9일	화	마 24-25		잠 25-31	
10월10일	수	마 26		전 1-12	
10월11일	목	마 27-28		아 1-8	
10월12일	금	막 1-2		사 1-8	
10월13일	토	막 3-4		사 9-16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